****

***The 4th Asan Memorial Lecture***

**“Confucian Humanism in the 21st Century:**

**China’s Quest for a New Cultural Identity”**

**-Tu Weiming-**

**Tu Weiming (杜維明)**

북경대학 고등인문연구원(北京大學高等人文硏究院) 원장으로 재직 중인 뚜웨이밍 교수는 동아시아 전통 유학(儒學)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대만 동해대학(東海大學)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Harvard University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Princeton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 Harvard University 에서 중국철학과 유교를 가르쳤으며, Harvard-Yenching Institute 소장, Institute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at the East-West Center in Hawaii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Centrality and Commonality: An Essay on Confucian Religiousness*,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Confucianism Spirituality* 등이 있다.

**◇뚜웨이밍**=1940년 중국 쿤밍(昆明) 출생. 49년 중국 공산화 직후 부모를 따라 대만으로 이주. 57년 대만 둥하이(東海)대 영문과 입학. 대학시절 쉬푸간·머우쭝산 등 현대 신유학자들의 사상을 접하고 진로를 중국 철학으로 바꿈. 61년 졸업과 함께 미 하버드대로 유학해 신유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Centrality and Commonality: An Essay on Confucian Religiousness』 『Humanity and Self-Cultivation: Essays in Confucian Thought』 등이 있다.뚜웨이밍(杜維明·68·미 하버드대) 교수는 동아시아 전통 유학(儒學)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강연 개요**

**“제1기 유학: 취푸(曲阜, 공자의 고향) 지방문화에서 중원(中原 )문화로”**

* “정신적인 인문주의(Spiritual Humanism)” 유학은 기원전 6세기에 등장.
* 유학은 공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나, 공자 자신은 고대 학술전통의 전달자일 뿐 유학의 기원은 주공(周公), 요(堯), 순(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함.
*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유교적 전통의 기원을 한국 문명의 시조의 하나로 여겨지는 기자(箕子)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기도 함.
* 유교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유학의 제1기(First Epoch of Confucianism)는 3세기의 동한(東漢) 시대까지 계속됨.
* 이 기간 동안 유교는 취푸(曲阜) 지역문화에서 중국 사상의 주류로 발전.
* 그러나 기원전 1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불교가 전파되면서 불교와 도교가 점차 중국의 중심사상으로 자리잡음.

**“제 2기의 유학의 부흥과 쇠퇴”**

* 10세기 한유(韓愈), 정호(程顥), 주희(朱熹), 등의 학자들에 의해 유학 부흥됨. 다시 중국의 주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사상으로 작동하기 시작.
* 베트남, 한국, 일본 등으로 전파됨. 시마다 겐지(Shimada Kenji)와 같은 학자들은 당시 유학을 “동아시아정신의 구현”으로 표현.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는 종종 유교적 문화권으로 분류됨.
* 그러나 19세기 중반 서구열강의 영향으로 유교적 국제 질서는 붕괴되고 유교적 전통은 봉건적인 과거로 치부됨. 유교는 중국 역사의 한 단락으로서 중요할 뿐 중국의 근대화에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는 인정받지 못함. 심지어 유교적 전통은 중국이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짐.
* 결국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20세기 중국의 주요 사상으로 자리잡음.

**“동아시아 유교에 대한 재조명과 제 3기 유교의 발전 가능성”**

* 1970년대 일본과 네 마리 작은 용들(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부상
* 개발 경제학, 정치 문화, 비교 철학, 종교학, 사상사의 학자들이 유교윤리를 막스 베버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밝힌 개신교 윤리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
* 이러한 해석은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에 의해 흔들리기도 했지만 유교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에 기여한 요소임을 부인하기 어려움.
* 197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더불어 중국 전역에서 유교 전통도 부활하기 시작.
* “유교 인문주의의 제3기 발전”은 실현 불가능한 상상 속의 일이 아님.

**“유교를 통한 중국의 새로운 문화정체성 모색”**

*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교 부흥의 가장 중대한 요소는 유교가 중국의 새로운 문화정체성 모색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 중국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유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임.
* 문화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범중화권(Greater China), 화교(Chinese Diaspora), 그리고 유관 해외공동체(concerned foreign community) 세 세계의 이데올로기적 융합은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개방적이고 다원적, 그리고 자기성찰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울 것임.
*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희망사항을 넘어 중국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 중국 지식인들 모두의 바램이 될 수도 있음.
* 중국이 완전한 시민 사회로 변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 그러나. 심도 있는 “공적 합리성” (public reasoning)에 의거한 공적 영역 (Public sphere)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중국의 특성을 지닌 민주주의 실현이 촉진될 것임.

**“유교 부흥, 동아시아 공동체 그리고 문명과의 대화”**

* 중국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교의 부활은 동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는 동아시아 공동체(東亞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유익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음.
* 유교의 부활은 문명과의 대화(dialogue among civilization)에 기여 할 수 있음. 유교적 인본주의는 생태학적, 페미니스트적, 공산사회주의자적, 다원론적 인식에 대한 창조적인 반응으로서 문화적 평화를 위한 보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격임. 다른 종교 간 소통을 위한 보편적인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현재 중국의 정치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지적 유희에 불과.